

국감에 이어 대선 후보지 공약 요구사항 발표

- 낙육협, 대선이후까지 지속적인 활동 전개 -

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0월 31일(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선후보자 공약 요구사항으로 낙농육우 핵심 5대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밝혔다.

낙농육우 핵심 5대과제로는 ▶첫째,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으로써,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인지하여 중장기 비전 및 정책을 마련하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목장경영환경개선, 낙농·유업 경쟁력 향상으로 유제품 시장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수수급 안정방안으로써, 정부의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정책 추진, 낙농진흥회 농가 기준원유량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셋째, 학교급식 메뉴로 우유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학교우유 급식 제도화(군급식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기반 유지, ▶넷째, 육우 군납 등 육우소비 확대 방안과 농협 하나로 클럽 국내산 육우 입점 등 육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다섯째, 대북 물자지원으로 쌀과 함께 식량으로서의 우유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북한어린이 우유지원 제도화 등을 들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우유는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품목인 만큼 식량의 개념으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연말의 대선 후보자는 낙농업, 나아가 농업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협회가 국정감사 관련하여 배부한 자료에도 제시했듯이 육우를 군급식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낙농육우 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국정감사 요청사항 10대 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대선공약 요청사항으로 낙농육우 5대 핵심사항을 마련하여 연말 대선과 선거이후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까지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